Lontano

- □□

정보

György Ligeti, Lontano

개요
작곡가: György Ligeti(1923–2006)
작품명: Lontano
작곡 시기: 1967년
초연: 1967년 10월 22일, Donaueschingen, Ernest Bour 지휘, Sinfonieorchester des Südwestfunks
장르: 대편성 관현악을 위한 단악장 관현악곡
위촉: Südwestfunk Baden-Baden
헌정: Sinfonie-Orchester des Südwestfunks Baden-Baden과 Ernest Bour
출판: Schott, ED 6303

György Ligeti의 Lontano는 전통적인 주제 전개보다 여러 성부가 시간과 리듬을 달리하며 겹치는 캐논, 음역의 중복, 음색의 투명도 변화를 통해 “먼 거리 ”의 청각을 만드는 단악장 관현악곡이다 . 1967년 Südwestfunk Baden-Baden의 위촉으로 쓰였고, 같은 해 10월 22일 Donaueschingen에서 Ernest Bour가 Sinfonieorchester des Südwestfunks를 지휘해 세계 초연했다. 시작은 Atmosphères의 밀집한 클러스터와 달리 하나의 유니즌에 가깝지만, 같은 음 높이의 순서가 서로 다른 시간과 속도로 들어오면서 선율선이
흐려지고 새로운 음향장이 형성된다. Ligeti가 말한 미크로폴리포니 (micropolyphony)는 이 숨은 성부 운동을 하나의 부드럽고 먼 표면으로 들리게 하는 작곡 원리다.

출판 정보

Schott가 출판과 연주 자료를 관리하며, 연구용 총보는 ED 6303, 대여용 연주 자료 (Performance material)는 LS 4517-01로 식별된다. 도서관 서지는 Mainz·London·New York의 1969년 연구용
총보를 40쪽으로 기록한다.
1969년이라는 서지 연도는 연구용 총보의 출판 ·재인쇄 정보이며, 작품의 작곡 완료나 개정 연도를
뜻하지 않는다. 공개 자료에서 초판의 음악적 변경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초연 악단의 명칭은 Südwestfunkorchester, SWF Orchestra, SWF Symphony Orchestra 등으로 다르게 표기되지만 , 모두 당시 Südwestfunk 계열을 가리킨다. 1967년 Donaueschingen 초연은 Berlin Philharmonic이나 Claudio Abbado의 공연이 아니라 Ernest Bour와 SWF 악단의 공연으로 여러 기관 자료가 일치한다.

작곡가의 초연 프로그램 해설은 1967년 Donaueschinger Musiktage 책자 Begegnung 특별호
15–17쪽에 실린 것으로 안내된다. Ligeti의 캐논과 음향 설명은 이 동시대 해설과 Schott·IRCAM의
전사를 바탕으로 전해진다.

소요 시간

작곡가 공식 페이지, Schott, IRCAM은 약 11분으로 제시한다. 녹음은 지휘자와 녹음 조건에 따라 더 넓은 범위를 보인다. Ernest Bour의 초기 녹음은 작곡가가 제시한 11분을 따른 것으로 평가되고, Jonathan Nott는 약 11분 35초, Claudio Abbado는 발매별 약 12분 45초에서 12분 52초, Hannu Lintu는 15분 47초로 기록된다. 이 값들은 서로 다른 해석의 실제 시간이다.

편성

플루트 4(제 2·제 3 플루트는 피콜로, 제 4 플루트는 G 알토 플루트 겸주), 오보에 4(제 4 오보에는 잉글리시 호른 겸주), A 클라리넷 1, B♭ 클라리넷 3(제 2는 베이스 클라리넷, 제 3은 콘트라베이스 클라리넷 선택 겸주), 바순 3, 콘트라바순 , 호른 4, C 트럼펫 3, 트롬본 2, 테너 ·베이스 트롬본, 튜바, 현악. 자료에 따라 D 트럼펫 3대를 선택 사항으로 덧붙이기도 한다. Schott는 현악의 최소 인원을 12·10·10·8·6으로 제시하고, Ligeti 공식 페이지는 총 연주자 수를 77명으로 표시한다. 타악기, 하프, 피아노는 상세 편성표에서 별도 항목이 일관되게 확인되지 않으므로 추가하지 않는다.

IRCAM의 상세 표기는 같은 파트를 겸주와 악기 종류까지 나누어 설명한다. 공식 페이지의 77명, Schott의 현악 최소 인원, IRCAM의 세부 파트 수는 각각 다른 집계 단위로 기록된다. 이 오케스트라의 규모는 악기 수의 합계보다 많은 성부가 같은 음향 안에서 서로 다른 속도로 움직인다는 점에서 드러난다.

유니즌에서 캐논으로

Ligeti의 설명에 따르면 Lontano는 처음부터 복잡한 집합음으로 시작하지 않는다. 한 음 높이의 유니즌에
가까운 선이 먼저 제시되고, 플루트와 클라리넷을 비롯한 새 악기가 같은 음 높이의 순서를 서로 다른 시간
간격과 리듬으로 이어받는다 . Amy Bauer는 첫 캐논에서 네 플루트와 네 클라리넷이 아홉 음의 입구를 차례로 만든다고 분석한다. 입구 사이의 지속과 쉼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청자는 모방 선율을 하나씩 따라가기보다
그 합성 결과로 나타나는 흐릿한 화성과 음색을 듣게 된다.

이 캐논은 1966년 무반주 혼성 16성부 작품 Lux aeterna에서 사용한 음 높이 순서와 관련된다. Jonathan W. Bernard는 두 작품의 시작이 같은 캐논 계열을 바탕으로 한다고 분석하지만 , 정확한 음 개수와 반복음의
계산에는 연구자별 수정이 있다. 따라서 두 작품을 같은 곡으로 보거나, 숫자 하나로 관계를 확정하기보다
공통된 성부 진행이 서로 다른 음향 결과를 낳는다는 점을 중심에 두는 편이 정확하다.

음향의 거리와 ‘harmonic crystallisation’
Schott가 소개하는 Ligeti의 표현인 “harmonic crystallisation”은 개별 성부가 거의 들리지 않는 상태에서
가상의 화성과 음색의 덩어리가 나타나는 과정을 가리킨다. 같은 음이 여러 옥타브와 악기군에서 겹치면

오르간에 가까운 오케스트라의 소리가 형성되고, 이어지는 잡음 성분이 짜임을 흐리게 만든다. 나중에는 일부 음이 다시 드러나며, Ligeti는 이를 구름 사이로 비치는 빛에 비유했다. 이 비유는 작곡가의 음향 설명이지, 모든 연주에서 동일한 이미지를 재현하라는 지침은 아니다.

작품 제목 Lontano는 이탈리아어로 “멀리 ” 또는 “먼 곳 ”을 뜻한다. Ligeti는 Schumann의 Davidsbündlertänze에 적힌 Wie aus der Ferne, Berlioz의 Symphonie fantastique 제 5악장에 쓰인 du lointain, 그리고 19세기 관현악의 원거리 효과를 제목의 발상과 연결했다. 강한 전체 음향 뒤에 약음기 호른이 나타나는 순간에는 Bruckner, Mahler, Wagner의 후기 낭만주의 기억도 언급한다. 이는 작곡가가 제시한 역사적 연상이며, 작품에 특정 문학적 줄거리나 풍경이 있다는 뜻으로 확대되지 않는다.

연속 형식의 청취 흐름

Lontano 공식 작품 페이지의 악장 표기는 Sostenuto espressivo 하나뿐이다 . 아래의 세 단계는 악장이나 번호가 아니라, 작곡가 해설과 분석 자료가 설명하는 음향 변화의 순서를 정리한 것이다.

1. 시작의 명료함
유니즌에 가까운 선이 잠시 명료하게 들린다. 곧 새로운 악기가 같은 음 높이의 순서를 다른 시간과
리듬으로 반복하면서 , 시작의 선은 여러 방향으로 퍼진다. 성부의 입구는 규칙적인 박동으로
합쳐지지 않고, 음향 표면 안에서 서로 다른 속도를 만든다.
2. 밀도와 투명도의 왕복
실제 성부와 옥타브 중복이 확대 ·축소되며 음향의 두께가 바뀐다. 여러 선율선이 서로 다른 속도로 겹쳐지면서 개별 모방 관계는 뒤로 물러나고, 음역과 음색의 농도가 앞에 나온다. Schott는 박자선이 연주자의 위치를 돕지만 전통적인 강세 중심을 반드시 정하는 표지는 아니라고 설명한다. 따라서 이 구간의 형식은 일정한 박의 반복보다 음향 상태의 변화로 지각된다.
3. 원거리 효과와 종결
강한 음향 뒤에 약음기 호른이 갑자기 나타나고, 먼 곳에서 들려오는 듯한 색채가 다시 형성된다.
Fabrice Fitch는 초기 Bour 녹음에서 약 2분 지점의 tutti 유니즌 C와 마지막의 높은 현악을 주요
청취 지점으로 꼽지만, 이는 비평가의 비교 기준이다. 작품은 별도의 재현부나 코다 표제 없이
음향의 투명도와 밀도가 바뀌는 과정으로 끝을 향한다.

편성과 음색이 만드는 구조

Amy Bauer는 Lontano에서 음색, 아티큘레이션 , 다이내믹, 음역과 편성이 음정 ·리듬과 분리된 장식이 아니라 구조를 만드는 작곡 수단이라고 분석한다. 첫 캐논의 네 플루트와 네 클라리넷, 네 겹의 피아니시모 입구, 약음기를 단 바순과 바이올린, 첼로가 배음과 기본음의 지각을 바꾼다는 설명이 그 예다. 이 분석은 악기들이 따로 선명하게 들려야 한다는 연주 지침이 아니라, 총보의 입구와 주법이 결합해 한 음향으로 들리는 과정을 설명한다.

Bernard는 Ligeti가 작곡 과정에서는 엄격한 성부 진행을 유지하면서도 , 청자가 모든 캐논 관계를 직접 추적하는 방식으로 들리지는 않는다고 논의한다. Lontano의 구조는 숨은 성부의 질서와 표면에서 느껴지는 거리감이 서로 어긋날 때 생긴다. 같은 공간의 오케스트라가 가까운 소리와 먼 배경을 오가듯 들리는 이유는 실제 무대 배치보다 이 성부와 음색의 겹침에 있다.

초연과 녹음

1967년 10월 22일 Donaueschingen 초연은 Südwestfunk Baden-Baden의 위촉과 축제 아카이브에 함께 기록된다. 초연 며칠 전 SWF 오케스트라와 Ernest Bour가 초기 녹음을 남겼다는 설명이 있으며, Swiss Collections의 음반 서지는 1967년 10월 13일 녹음일을 제시한다. 이 음반의 정확한 최초 발매일은 서지마다 달라 하나로 확정되지 않는다.

후대 녹음은 작품의 시간과 음향 균형이 해석에 따라 달라짐을 보여 준다. Claudio Abbado와 Vienna Philharmonic의 1988년 10월 Vienna Musikverein 실황은 발매별로 약 12분 45초에서 12분 52초이고, Jonathan Nott와 Berlin Philharmonic의 2001년 12월 실황은 약 11분 35초다. George Benjamin과 Bavarian Radio Symphony Orchestra의 2012년 실황은 11분 37초, Hannu Lintu와 Finnish Radio Symphony Orchestra의 2012년 스튜디오 녹음은 15분 47초로 기록된다. Gramophone과 MusicWeb이 기록한 차이는 현악과 관악의 존재감, 호른 화음, 내부 성부를 드러내는 속도에 관한 비평가의 관찰이다. 이 시간 차이만으로 개정판이나 컷을 추정할 근거는 없다.

주요 자료

György Ligeti 공식 작품 페이지, Lontano
Schott Music, Lontano
Schott Music, Work of the Week: Lontano
IRCAM, Lontano
SWR Donaueschinger Musiktage archive
Swiss Collections, Lontano study score
Swiss Collections, Wergo phonograph record db.musicaustria.at, Lontano für großes Orchester
Gramophone, Explorations: György Ligeti’s Lontano Gramophone, Ligeti Violin Concerto and San Francisco Polyphony Gramophone, The Ligeti Project Vol. 2
MusicWeb, The Ligeti Project Vol. 2
MusicWeb, Ligeti Lontano NEOS 11422
MusicWeb, György Ligeti Orchestral Music
Amy Bauer, “Composing the Sound Itself”
Jonathan W. Bernard, “Voice Leading as a Spatial Function in the Music of Ligeti” Britta Sweers, “Listening to Lontano”
MusicBrainz, Abbado 녹음